

# 나주에 최첨단 무인 자동화 농업단지 만든다

시, 도농기원과 시범단지 조성 협약 ICT·IoT 접목 스마트 농업 박차 기업 유치·일자리 창출 활성화 기대

나주에 전국 최초로 최첨단 무인 자동화 농업생산단지가 조성된다. 나주시는 최근 전남도농업기술원과 첨단 무인 자동화 농업생산 시범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미래형 농업방식인 스마트 농업의 핵심으로 정보통신기술(ICT)과 사물인터넷(IoT) 등을 첨단 농기계에 접목해 무인 자동화 농업생산 플랫폼을 구축한다.

농업인구 고령화와 4차 산업 혁명 등에 대비하고 지역 농업을 국제 경쟁력을 갖춘 고효율 무인·자동화 농업 생산 전진기지로 육성하는 것이 주된 목표다.

전남도농자관리소 부지 53ha에 400억원을 투입, 연말까지 기본계획과 세부 설계에 들어간 뒤 2023년 말까지 시범단지를 조성한다.

앞서 전남도농업기술원은 설계와 시범단지 조성

사업을 할 한국농어촌공사, 통합제어 시스템을 구축할 전남대와 협약을 했다.

시범단지에는 무인 육묘장, 첨단 농업기계화 종합관리센터, 무인·자동화 농기계(22종 50대)와 관리시설, 노지 스마트팜 통합관리시스템 등이 구축된다.

농업기술원은 시범단지 운영을 통해 무인·자동화 농업생산 기술을 개발, 제공하고 나주시는 도시 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적 지원에 나선다.

도 농업기술원과 나주시 등은 시범단지가 청년 농업인 육성의 요람이자 농기계·정보통신 등 연관 기업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종재 도 농업기술원장은 "시범단지가 조성되면 1100여명의 일자리 창출과 66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함께 첨단 미래농업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스마트 농업은 농촌 고령화와 기후변화 등 농업 변화에 대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농업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사업 성공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나주시와 전남도농업기술원은 최근 최첨단 무인 자동화 농업생산 시범단지 조성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나주시 제공)

## 화순군, 여름철 재난 대비 종합대책 추진

집중호우·태풍 피해 최소화

화순군은 태풍·폭염 등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여름은 강수의 경우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기 불안정 등으로 국지성 돌발 집중호우 발생 가능성이 크다. 기온은 지난해보다 0.5~1.5℃가량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태풍은 9~12개가 발생해 이 중 2~3개의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광주지방기상청은 전망했다.

이에 따라 화순군은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 1억8000여만원을 투입해 하천 31곳, 13.8km 구간의 퇴적토를 준설했다.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실태점검 추진 지침에 따라 살·소별 소관 재해 취약시설물(대형 공사 현

장 10곳, 저수지 4곳, 급경사지 66곳, 지방하천 60곳, 소화천 400곳 등) 점검반을 구성해 실태 점검을 하고 있다.

또 방재 교육, 비상 연락망 등 자연재난 대비 행동요령을 정비하고 표준행동 매뉴얼을 제작·배부해 살·과·소·읍·면과 관계기관이 재난에 대비하도록 했다.

13개 읍·면이 관리하는 수방 자재의 비축·관리 상태 등을 일제히 점검하고 부족한 수량을 파악해 재난 안전선, 우의, 정화 등 수방 자재 7개 품목 332개를 배부했다.

폭염 피해 저감 시설인 그늘막을 34곳에 설치해 5월 중순부터 운영하고, 무더위 쉼터 282곳의 관리 상태와 쿨링포그 4곳의 작동 상태도 점검했다.

폭염 피해 예방 전담팀 구성 등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 지침을 포함한 폭염 대응 종합계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종합대책을 수립한 화순군 관계자들이 공사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화순군 제공)

획을 수립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지구 온난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 등 이상 기후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며 "여

름철 자연재난에 선제 대응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 장성 공설운동장 공정률 70%... "2022년 전남체전 유치"

장성군은 장성을 기산리 황룡강변에 건설 중인 공설운동장의 공정률이 70%를 달성했다고 3일 밝혔다.

일정대로 공사를 하면 올해 11월께 준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성군은 공설운동장 명칭을 '장성 엘로우시티 스타디움'(조감도)으로 정하고, 2022년 전남체육

대회를 유치할 계획이다.

공설운동장은 5000명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관람석과 4층 규모의 본관동,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씨름장, 소공원, 주차장 등을 갖춘다. 취암천 물줄기를 바꿔 장성을 시가지와 가까운 황룡강변에 7만4911㎡ 면적의 용지를 마련, 건설 중이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 화순군 모든 군민에 1인당 20만원씩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공포...지급 시기는 확정 안돼

화순군은 모든 군민에게 1인당 2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순군 재난기본소득 지급조례'를 공포했다고 3일 밝혔다.

구중군 화순군수가 최근 담화문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대책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키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화순군은 이를 위해 예산 125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화순군민은 전남도 긴급생활비와 연계한 화순형 재난생계지원금,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에 이어 재난기본소득을 받게 된다.

이를 중위소득 100% 이하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최대 280만원이 지원된다.

다만 재난생계지원금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고려해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기를 확정하지는 않았다.

앞서 화순군은 지난 3월 광주·전남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현금성 직접 지원' 정책인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계획을 마련했다. 현재까지 3294개 업체에 각각 100만원씩 총 32억9400만원을 지급했다.

전남도 긴급생활비와 연계한 화순형 재난생계지원금도 다른 지자체보다 많은 1인 가구 50만원, 2~3인 가구 7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을 지급했다. 현재까지 1만1996가구에 78억5000여만원을 지급했다.

구중군 화순군수는 "재난기본소득 등 재난 지원은 시혜성 복지가 아니라 재난 피해를 본 군민으로서 마땅히 지원받아야 할 권리"라며 "앞으로도 이 원칙에 따라 코로나19 지원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 담양군 생후 8개월 미만 영아

로타바이러스 무료 예방접종

담양군은 생후 8개월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로타바이러스 예방 접종을 무료로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대상은 생후 8개월 미만 영아 부모가 담양에 주소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접종 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영아 부모는 예방접종수첩,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가지고 오전 9~11시30분까지 보건소 예방접종실이나 보건지소로 방문하면 된다.

로타바이러스는 영유아에서 발생하는 위장관염의 흔한 원인으로 감염 시 구토·설사·발열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접종 후 약 20~30분 간 머무르며 급성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한 뒤 귀가해야 한다.

/담양=노영찬 기자 nyc@kwangju.co.kr

수목장 허가·운영 전문기업

수목장 투자

신규 수목장 투자

2,000만원부터 투자 가능

예상수익 2,000만원 투자로 월 85~105만원 수익 예상  
 평생 소득 구축, 30명 한정투자

자료 : 보건복지부

노후 준비 +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장례준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기회

친환경 장묘문화(주)

전화 070-5172-3090  
H·P 010-8431-5199